

광주시, 6개 도시 '문화탐험대 프로젝트' 성료

광주형 문화재생 공적개발원조 태국 치앙마이서 결과물 전시회 中·태국·몽골 등 청년예술가 참여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

아시아 6개 도시의 청년예술가들로 구성된 '아시아문화탐험대'가 최근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시회 등 예술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성료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4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최근(지난해 12월 2~11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광주형 문화공적개발원조(ODA)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아시아 각국의 청년예술가들이 서로 연대해 나후되고 노후화된 공간에 대해 다양한 예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문화재생 프로젝트로,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한 광주시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이다.

대한민국 광주, 중국 난양, 태국 치앙마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몽골 울란바토르, 대만 창화 등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 6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 동구 지산2동 다복마을에서 전원이 참여해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이어 12월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광주와 치앙마이 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것이다.

이번 교류사업에는 치앙마이대학 문화관광 분야 연구단체인 CTRD(Center of Tourism Research and Development)도 함께 했다.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앞서 광주시가 2022년 태국 치앙마이대학에 기증한 4동

의 컨테이너에 추가로 3동을 기증해 미니 복합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에 치앙마이와 광주지역 청년예술가들의 공동창작물과 아시아 장애인예술가들의 작품, '2024 문화재생 아이디어 국제공모전' 결과물, 치앙마이 청년예술가들의 작품 등을 선보인 전시회를 열어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치앙마이 도시와 문화를 학습하며 '도시'를 주제로 한 광주지역 청년예술가와 치앙마이 청년예술가들의 공동창작물 6점을 설치·전시했다. 작품은 태국과 한국의 언어와 집, 사람을 조형화시킨 '문화의 교차점 : 태국과 한국의 만남' (4점), 치앙마이와 광주를 탐색하며 수집한 사진과 영상 소스로 만든 미디어 작품인 '연속된 공간, 도시' (1점), 친환경에너지로 고민해 보는 설치 작품인 '빛의 자전거

(1점) 등이다. 이 중 '연속된 공간, 도시'는 30m 대형 미디어월을 활용한 미디어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시아 장애인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인 '언어 없는 노래 전시전'도 개최했다. 대만 타이중 심신장애 예술발전협의회와 광주 소화누리의 정신·발달 장애인 예술가 1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애를 넘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표현한 작품들로 예술의 사회적 힘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치앙마이 청년예술가 소개전'도 진행했다. 치앙마이 아트뮤지엄과 협력해 치앙마이 청년예술가 총 5명의 20작품을 선보이는 등 지역 청년예술가들을 새롭게 발굴한 등용문이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아시아 6개 도시 청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문화재생 아이디어 국제공모전 Asia Culture Driver'의 아이디어 결과물들도 전시됐다. 아이디어 중 범죄예방 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예술프로젝트, 위축된 치앙마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공공예술프로젝트, 태국 라프지역 벽화를 분석하고 지역과 공간을 반영한 벽화프로젝트, 전통놀이 현대적·예술적 체험으로 풀어낸 공공예술프로젝트 등의 아이디어 결과물이 전시됐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문화예술이 현대의 가장 강력한 도시경쟁력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 도시들이 증명했다"며 "아시아 문화도시 간 문화교류사업은 광주가 지닌 문화적 힘과 가능성을 아시아 각국과 나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ACC 주변 광산길 오늘 확장 개통

ACC~전대병원오거리 215m 구간 일방 2차로→양복 5차로까지 확장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오거리를 연결하는 '광산길'을 기존 일방 2차로에서 양복 5차로로 확장해 3일 개통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광산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진입도로로, 기존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양측에 폭 3~4m의 보도를 조성했다.

광주시는 이번 확장 개통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쇄의거리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번 광산길 조성 과정에서 건축·공간계획·조경 분야 등 전문가들이 참여, 차도를 블록 포장재로 바꾸고 보차도 경계석을 경사식으로 조정하는 등 보행친화적도로로 조성했다.

광주시는 광산길을 평소 양복 5차로(문화전당 방향 2차로+전남대병원 방향 3차로)로 이용하고, 주말이나 지역축제 등 일정 기간에는 '차 없는 보행로'로 변경해 '대·자·보 도시'에 맞는 다양한 사회실용이 가능한 길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무안국제공항 자원봉사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들이 2일 무안국제공항 2층 대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김밥과 음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농업기술센터, AI농업마케팅 교육생 모집

10일까지 15명...마케팅 역량 강화

광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경영·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AI농업마케팅' 과정의 교육생 15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이 교육과정은 챗·지피티(Chat GPT), 넓진 인공지능(AI)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농장 브랜딩 로고 및 영상 제작,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디지털 마케팅 전반을 다루며,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앞서 지난해 12월

'생성형AI 활용 농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교육'을 진행, 인공지능기술의 농업 활용 가능성을 열었다.

이 교육에서는 시장 분석, 재무 계획 작성,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등의 과정을 인공지능 기술로 배우고 실습했으며, 교육생 전원이 현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문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했다"며 "인공지능이 농창업 준비의 든든한 도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나주 남평~화순 간 국지도 확포장 전면 개통

전남도는 나주 남평~화순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전면 개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포장공사는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간 연결을 위해 총사업비 1256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체 연장길이 6.85km에 4차선으로 한층 넓어지고 안전한 도로로 탈바꿈했다. 주요 시설물은 총 7개 교량과 1개 터널로, 도로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수단이 되도록 건설했다.

나주 남평과 화순 주민들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도로 개통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이제 남평에서 화순까

지가 길이 훨씬 빨라질 뿐 아니라, 도로가 넓고 안전해져서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주민도 "교통 여건이 좋아져 지역 특산물 판매와 관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송광민 전남도 도로정책과장은 "남평~화순 간 국지도 55호선 개통은 단순히 도로를 잇는 것을 넘어 지역과 사람,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올해부터 난임 부부 지원사업 확대

소득·연령 제한 폐지...차등 지원 정·난관 복원·생식세포 동결 시설

전남도가 올해부터 난임 부부를 위해 소득과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모든 난임 부부에 소득, 연령,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30만~150만원의 시술비를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정관복원에 최대 50만원, 난관복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난소나 고환 절제 등으로 불임이 예상되면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연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남 권역 난임·우울 증 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 난임·임신·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가임력 증진을 위한 많은 시술이 비급여 항목임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정부 지원사업인 양방 난임 시술비 지원에 비급여 시술비를 포함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난임 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만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의 난임 환자는 65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난임시술비 등 지원을 통해 매년 20~30%의 임신 성공률로 출생아가 태어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 연장

오는 12월 말까지...누적액 136억 지역 농업인 경영부담 경감 특목

전남도는 영농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4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

한 전남도의 2024년 11월 기준 감면 누적액은 42만 7000농가, 134억 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는 9만 4000원에서 4만 7000원, 트랙터(35마력 기준)

는 5만 5000원에서 2만 7500원, 관리기는 90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75개소에서 1만 3000여 대의 농기계를 구비해 농가에 임대 운영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